



CEO에게 들어보는 JAD이야기

Interview

변인근 JAD 회장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아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JAD Group의 변인근 회장을 만나 JAD의 미래 및 올 11월에 개최될 JAD국제 공모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D / 변인근 회장

Q 먼저 JAD창립 16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된 JAD가 '제 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A 1991년 중앙디자인으로 태동한 JAD가 올해 열여섯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립 16주년.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업계의 대표로서, 좀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와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고객감동 실현을 목표로 2007년 저희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16주년 기념식 중 사가경연대회 모습

Q 요즘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하나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고 하는데, **JAD가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성공하는 기업에 있어서 '유아독존'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앙디자인, 자드건설, 자드미디어웍스 JAD 3사가 하나되는 조직문화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JAD개개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사 Badge를 제작하고, JAD사기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직원 공모로 선정된 Badge와 사가 노랫말이라 그런지 직원들도 더욱더 그 의미를 새롭게 두더군요. 16주년 창립기념일에 있었던 사가경연대회에서 직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JAD국제디자인공모전

Q **JAD에서 개최하는 국제공모전이 올해 벌써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은 **꽤 오래기간을 지속시켜가고 있는데요. JAD공모전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JAD공모전은 저희 JAD의 지난 세월과 함께해 온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개최를 하게 된 계기는 94년 당시 열약했던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에 대한 투자, 즉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나라 디자인 퀄리티를 높여야겠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디자인 수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국제공모전으로 확장하여 세계 속에 우리 디자인을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세계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입니다.

Q **끝으로 JAD의 미래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 세계는 지금 서로 다른 영역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컨버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JAD도 마찬가지죠. 아름답고 똑똑한 디자인, 단순히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예술적이고 기능적인 건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눈과 귀를 열어 항상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AD의 미래는 그것만으로도 밝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